

한-독, 전기화 시대 산업경쟁력 확보 위한 에너지 협력 강화

- 양국 차관, 공동의향 합의서 갱신...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혁신 협력 강화
- 제조업 강국으로서 산업경쟁력·탄소중립 동시 달성 위한 전략적 협력 재정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30일 오후 인터콘티넨탈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과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슈테판 루엔호프(Stefan Rouenhoff) 정무차관 겸 연방하원의원이 갱신된 ‘한-독 공동의향 합의서(JDoI, 이하 합의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에너지정책 및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 갱신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과 전기화 확대,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와 독일이 에너지 전환을 산업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협력의 전략적 방향을 재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2019년 에너지 파트너십을 수립한 이후 에너지 정책대화, 전문가 교류, 공동연구 및 기업 간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갱신은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변화하는 에너지 여건, 양국의 탈탄소화 목표를 반영하여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고 이행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은 이번 합의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청정수소, 전력망·에너지 저장장치, 인공지능·디지털 및 혁신적 저탄소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망의 안정성과 유연성 확보, 에너지 시스템의 디지털화, 산업부문의 전기화와 탈탄소화 등 공통 과제에 대한 정책·기술 협력을 심화하여, 양국의 에너지 여건을 존중하면서 탈탄소 가속화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독 에너지전환협력위원회와 담당부서 간 정기 협의를 통해 협력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독 에너지데이, 연수회(워크숍), 현장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축적한 정책·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기업 간 기술교류와 사업 협력으로 연계함으로써 에너지전환의 실질적인 산업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안정적이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양국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공동의향 합의서 갱신을 계기로 제조업 강국인 양국이 정책 경험과 기술 역량을 결합하고, 연구기관과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전환을 산업혁신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독일 경제에너지부 차관 면담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최한창 (044-201-6600)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박정욱 (044-201-6609)

1. 면담 개요

- ☐ (배경)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차관이 아·태 독일경제회의(APK) 참석차 방한에 맞춰 양국 에너지 협력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차관 면담 요청
- ☐ (일시변경/장소) '26. 10. 30.(금) 14:00 /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
- ☐ (면담대상)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슈테판 루엔호프(Stefan Rouenhoff) 정무차관

슈테판 루엔호프(Stefan Rouenhoff)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정무차관		
	직책	Parliamentary State Secretary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본대학교 정치학 Magister과정 • 영국 버밍엄대학교 국제학 석사 • 독일 본대학교 경제학 Diplom 학위 취득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5~현재)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정무차관 • ('17~현재) 독일 연방하원의원 • ('21~'25) 연방하원 경제위원회 위원 • ('17~'21) 연방하원 경제에너지위원회 위원 • ('14~'17) 주EU 독일대표부 통상담당관 • ('12~'14)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대변인

2. 주요 의제

- ☐ 한-독 에너지 파트너십 발전 방향과 공동의향서(JDoI) 갱신 및 양국의 중점 협력방향 논의
 - * '19년 한(산업부)-독(경제에너지부)간 체결한 공동의향서(Joint Declaration of Intent)로 한국측 담당 부처를 기후부로 변경하고 협력 의제를 현행화
- ☐ 에너지 전환 협력 확대